

한국紙 毎日經濟 1996年11月9日

아시아고속도가本格的に推進

韓日海底トンネル~北京~ヨーロッパを南北路線で連結
建設交通部、ESCAP に派遣

日本とヨーロッパを高速道路で結ぶアジア高速道路建設事業の推進が次第に現実的になっている。

建設交通部は、先月28日にインドのニューデリーで開かれた国連アジア太平洋経済社会委員会(ESCAP)のインフラ閣僚会議でアジア高速道路の建設事業についての論議が進められたことに対し、建設交通部の関係者をESCAPに派遣、この事業に積極的に参与することになったことを8日、明らかにした。

ESCAPは80年代初盤にアジア高速道路構築事業を計画し、各国に意向を打診したが中国など一部の国の反対でそれを成就できなかった。

しかし、最近、総会で中国が自国を経てヨーロッパにゆく新たな路線を提示し、これが受け入れられるならばアジア高速道路網の構築事業に参画するとの意志を示し、アジア高速道路の建設事業が具体的になっている。

ESCAPがこれまで計画してきたアジア高速道路の予想路線図は、韓日海底トンネルを掘り日本と韓国を結んだ後、韓半島を経て中国の瀋陽と北京に至り、北京から南北に分かれてヨーロッパまで繋ぐというものである。

南部路線の場合は、北京から上海、ベトナム、タイを経て、ネパール、バングラデッシュ、インドの北部、パキスタン、中東、トルコ、アフガニスタンを過ぎ、南ヨーロッパへと結ばれる総延長2万3千Kmである。

北部路線は、北京からモンゴル、シベリアを経てモスクワ、北ヨーロッパへと結ばれるルートで総延長は1万5千Kmである。

1996년 11월 9일 토요일 매일경제

아시아고속도 본격 추진

韓·日 해저터널~北京-유럽 南北노선 연결

건교부 ESCAP에 파견

徐仁錫기자

일본과 유럽을 고속도로로 잇는 아시아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8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ESCAP) 인프라 각료회의에서 아시아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건교부 관계관을 ESCAP에 파견,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ESCAP은 80년대 초반 아시아고속도로 구축사업을 구상, 각국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중국 등 일부 국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총회에서 중국이 자국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새로운 노선을 들고 나와 이를 수용할 경우 아시아고속도로망 구축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아시아고속도로 건설사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ESCAP이 지금까지 구상해온 아시아고속도로 예상노선은 韓·日 해저터널을 뚫어 일본과 한국을 연결한 뒤 한반도를 지나 중국 瀋陽과 北京을 거치며 北京에서 남북으로 갈라져 유럽까지 이어지도록 돼 있다.

남부노선의 경우 北京에서 上海, 베트남, 태국을 거쳐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북부와 파키스탄, 중동, 터키, 아프가니스탄을 지나 남유럽으로 연결되는 총 2만3천km이다.

북부노선은 北京에서 몽골, 시베리아를 거쳐 모스크바, 북유럽으로 연결되는 루트로 총 연장은 1만5천 km이다.